



루터의 도시를 가다

10

아이제나흐(바르트부르크 성)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름스 제국의회를 마친 후, 루터가 대적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다. 루터를 체포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권력자들에게는 의아스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들이 루터를 납치한단 말인가?’ 로마 교황과 손잡고 있던 이들은 미궁에 빠진 루터의 행방을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루터는 대적자들 손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어느 도시로 모셔진 것이었다. 루터 후송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작센공 프리드리히의 아이디어였다. 루터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개혁 운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프리드리히가 꾸민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루터를 안전

한 지역으로 데려올 수 없었던 것이다.

루터는 개혁 사상을 수용한 도시 중 하나인 아이제나흐(Eisenach)로 돌아왔다. 시내에는 게오르겐 교회가 있는데, 1685년 3월 바호가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루터는 이 유서 깊은 교회에서 설교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로마 교황과 가톨릭교회의 관습 속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배어 있는지 회중에게 선포하였다.

1521년 5월 4일 루터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역시 작센공의 배려였다. 아이제나흐 시를 감싸고 있는 산줄기에 세워진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에서 루터는 은둔자처럼 지냈다. 그가 침묵과 묵상, 외로움 가운데 행한 일은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작업으로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모국어 성경 번역은 가톨릭에 의해 가혹하게 핍박을 당했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체코에서는 후스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할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바르트부르크에서의 역사는 이렇게 이뤄졌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